

5. 흥선대원군 이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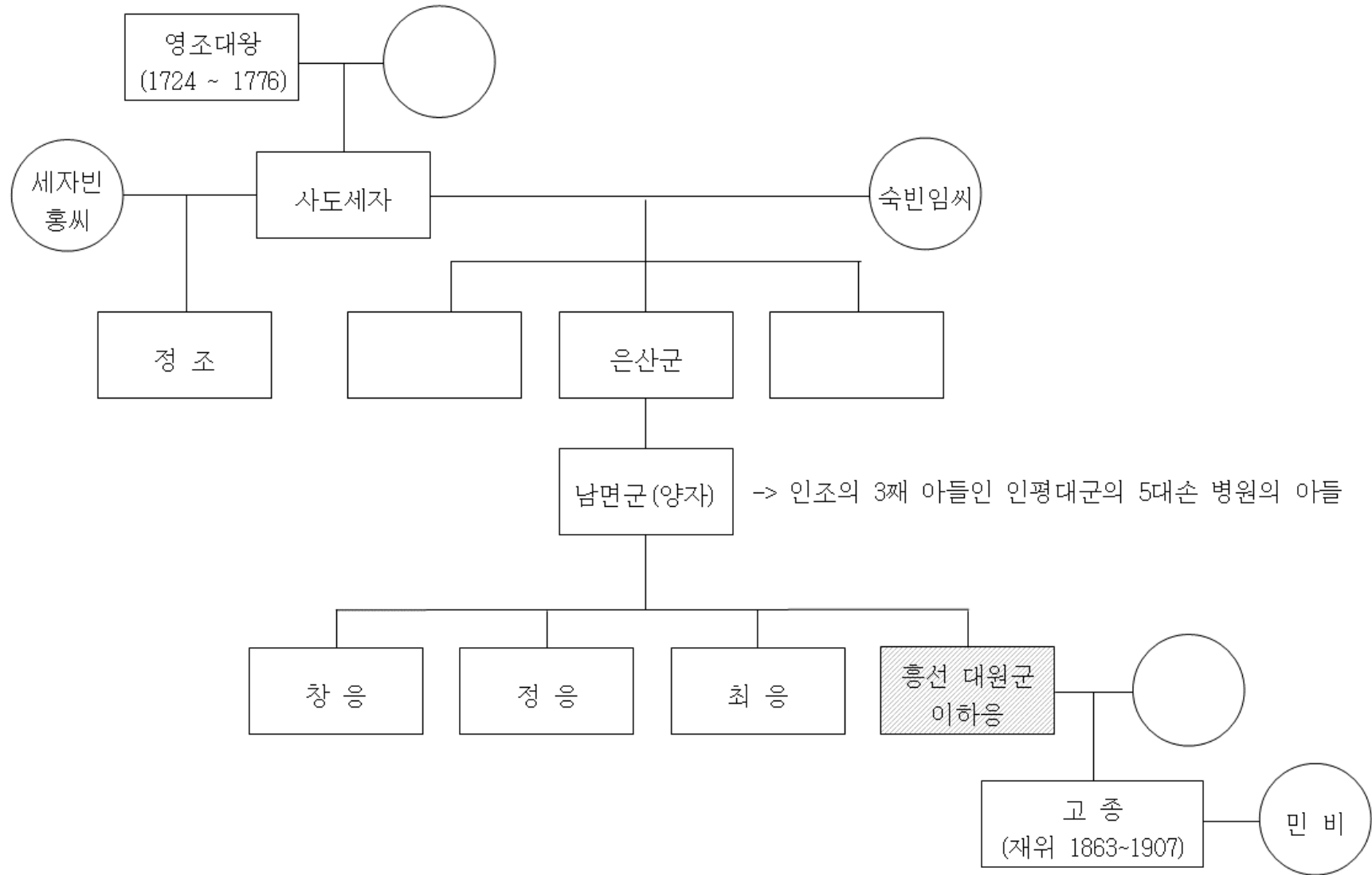
5. 흥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

1) 대원군의 생애와 시기별 작품

. 생애

- 이하응은 조선왕조 제 26대 왕 고종(재위/1863 ~ 1907)의 생부로서 1820년 12월 21일 서울 안국동에서 영조의 현손인 남연군 이구(1788 ~ 1836)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 이하응의 가계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세자빈 홍씨에게서 얻은 아들이 정조이고 궁녀 숙빈 임씨에게서 얻은 세 아들 중 둘째아들이 은산군 이었다. 은산군이 후사가 없어 인조의 셋째아들인 인평대군의 5대손 병원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는데 바로 그가 이하응의 친부인 남연군 구(球)이다. 이하응은 네 형제 중 막내로서 위로 창응, 정응, 최응등 세형이 있었고 가계로 볼 때 실세한 왕족이긴 했지만 그 당시 얼마 안 되는 왕족 가운데 혈통이 분명한 왕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척족제도 앞에서 이미 무력해진 왕손이었기 때문에 내심으로 야심을 키워가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무능한 왕족으로 살아야 했다.
- 그의 생애는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어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집권기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3기로 나누는데 1기는 고종 즉위로 비롯되는 1차집권(1864~1873), 2기는 임오군란을 통한 2차집권(1882.6.10.~ 7.12), 3기는 갑오경장때의 3차집권(1894. 6.21~ 10.21)으로 나눈다.

. 대원군의 가계도



2) 시기별 작품

- 그의 생애는 3단계로 구분하지만 예술창작이나 화풍변화 측면에서는 4단계로 구분된다.

제1기(1820~1863)

-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내며 추사 김정희에 경도된 시기

- ± 34세~ 37세
 - ± 추사로부터
 - ± 묵란화와 서법
 - ± 본격적사사
- 43세 1863년

» 대원군의 생애 1기 (1820~1862)

- 집권 전 불우한 청소년기
- 추사의 난맹첩을 바탕으로



묵란첩

화풍 면에서는 일치



화제의 내용이나 형식에서는
처음부터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추사와 구별됨

제2기 (1864~1882/44세~62세) - 정계복귀의 야심과 울분을 묵란화로 삭히던 시기. 1차 집권기(~1882)와 난초그림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던 은거기가 해당

44세 (1864년)
1차 집권기

55세 (1874년)
은거기
(민비와의 갈등)

62세 1882.5



» 대원군의 생애 2기 (1864~1882)

- 1차 집권기와 민비와의 갈등으로 은거하던 시기
- 스승 김정희의 필법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적 구도법과 특징적인 묘사방식을 모색했던 시기

노근란을 중심으로 한 군란화 형식

배경적 요소 석란화 형식

종축의 총란화 형식



석란화 형식은
석파란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발전

제3기 (1882~1885.8)- 질병의 고통과 가슴속의 한을 묵란화로 승화시킨 시기. 임오군란으로 재집권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보정부에 유폐.

63세

2차 집권기

1882.6.10~

1882.7.12

보정부(청)

유폐생활

66세 18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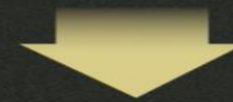
1884년 석란도



» 대원군의 생애 3기 (1882.7~1888.8)

- 청군의 개입으로 중국 천진 보정부로 연행되어 3년간의 유폐생활을 했던 시기
- 묵란화의 변화 시기로 창작생활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석란화를 주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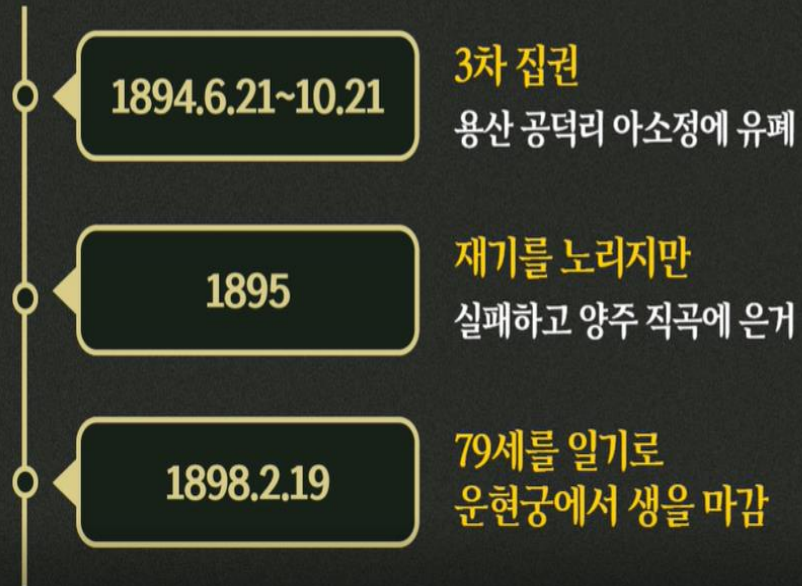


특히 귀국 직전의 석란화는 난이파리가 힘차게 위로 향하는 등 운필에 힘이 넘치는 정치적 재기의 의지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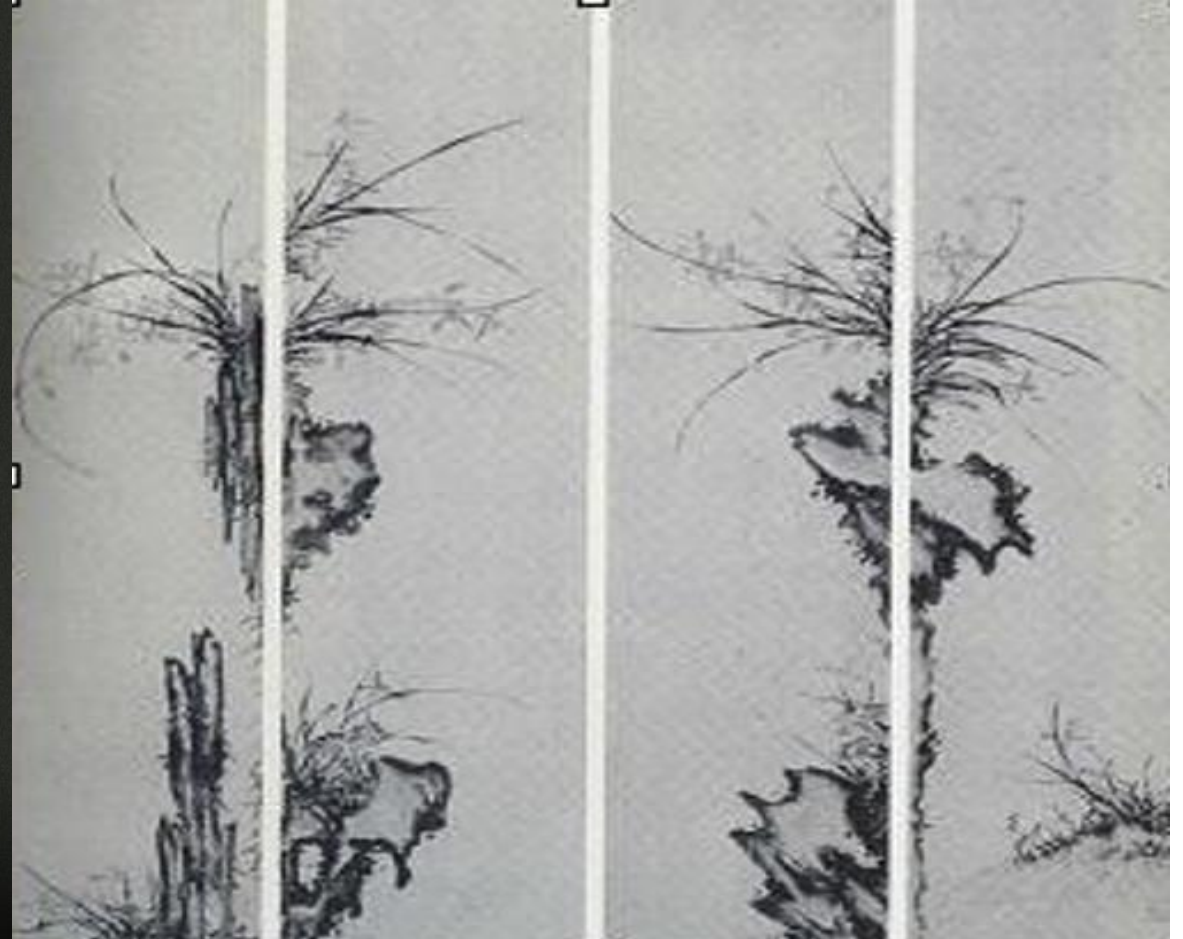
제4기 (1885,9~1898,2)-재집권의 노력을 묵란화로 표현하던 시기로 재집권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
-괴석을 이용하여 지조와 절개표현

» **대원군의 생애** 4기 (1885.9~1898.2)

- 청으로부터 귀국한 후에 정권에 더욱 집착해서 민비와 더욱 대립하게 된 말년
- 중국에서 귀환 후 거의 10년간 운현궁에 유폐됨



➔ 집권기를 제외한 시간은 예술가로서의 삶



. 대원군의 작품

대원군의 묵란화 형식은 크게 군란화, 석란화, 총란화 3종류로 나누어진다

• 군란화

• 군란화는 세로의 긴 화면에 배경 없이 몇 포기씩의 묵란들을 겹치지 않게 배열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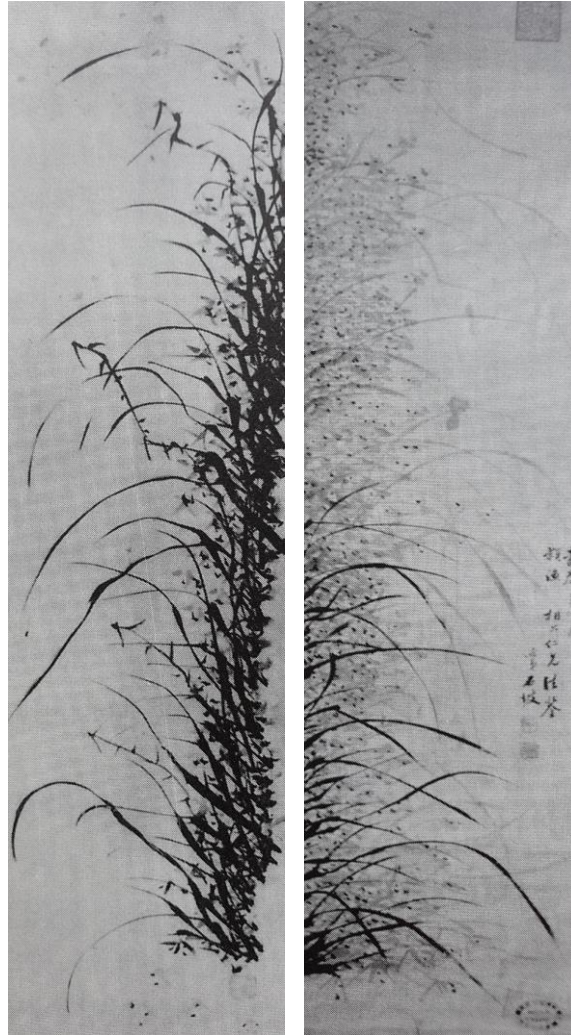
• 스승인 추사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청대화 풍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이하응 특유의 묵란화 구성법이다.



김정숙(2004).

. 대원군의 작품

- 총란화
- 언덕을 배경으로 난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정경을 그린 구성법.
- 추사는 가로와 횡폭을 그렸지만 이하응은 세로의 종축을 주로 그렸다.
- 석란화
- 말년까지 계속된 그의 대표적 화면 구성법.
- 바위를 배경으로 아래위에 난을 배치한 그림이다.



총란화



석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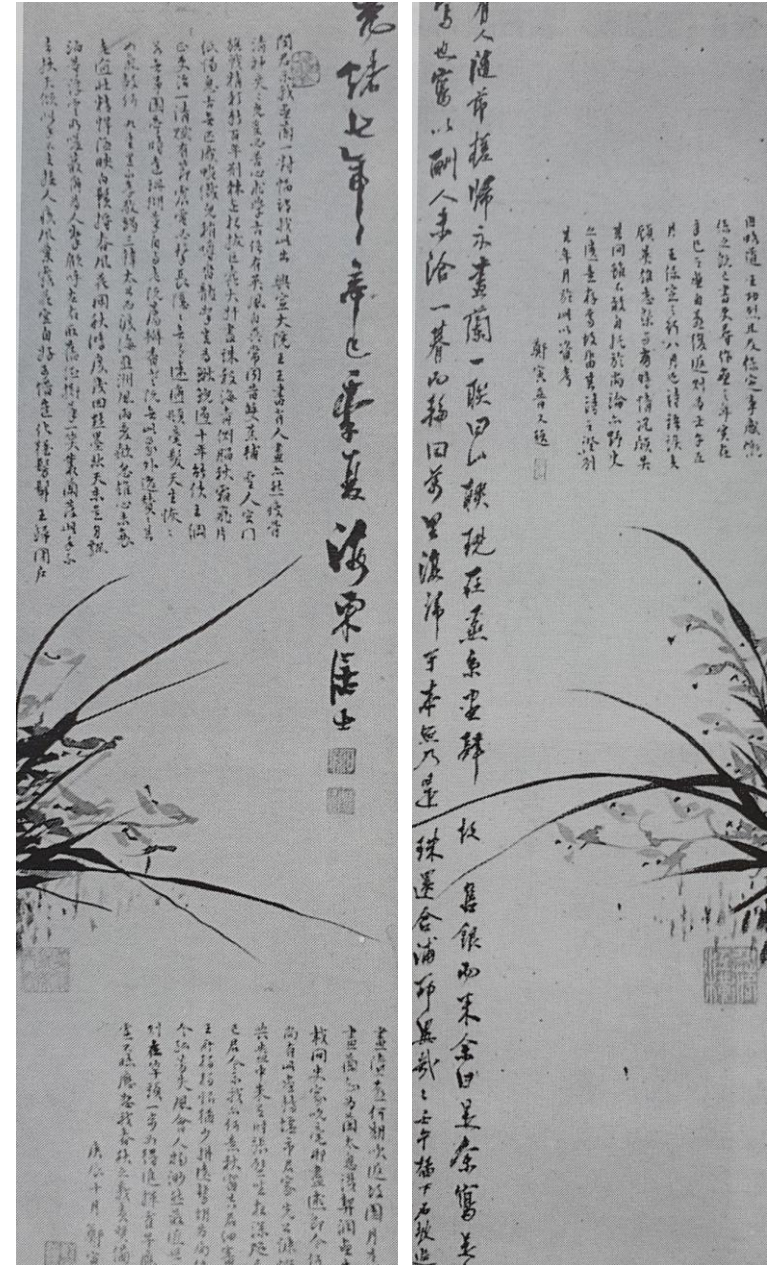
김정숙(2004).

총란도 대련

-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이하응은 정계복귀의 야심과 울분을 안으로 삭이며 묵란화에 심취하게 된다.
- 총란도 대련은 1881년 제작되었으나 1882년 여름 북경에서 지인이 다시 사온 그림으로 잃어버린 진주를 찾은 심정을 추서한 작품이다.
- 이 추서 직후 임오군란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중국으로 피랍되어 장래가 불투명한 억류생활로 병고에 시달리는 등 시련을 겪게 되지만 8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질병의 고통과 가슴속의 한을 승화시켜 묵란화를 그리기 시작한다



김정숙(2004)



작품의 특징

» 대원군의 작품 군란화



군란화

세로의 긴 화면에 배경 없이 몇 포기의
묵란들을 겹치지 않게 배열한 그림



청대화풍을 수용해서 발전시킨
이하응 특유의 묵란화 구성법

» 대원군의 작품 석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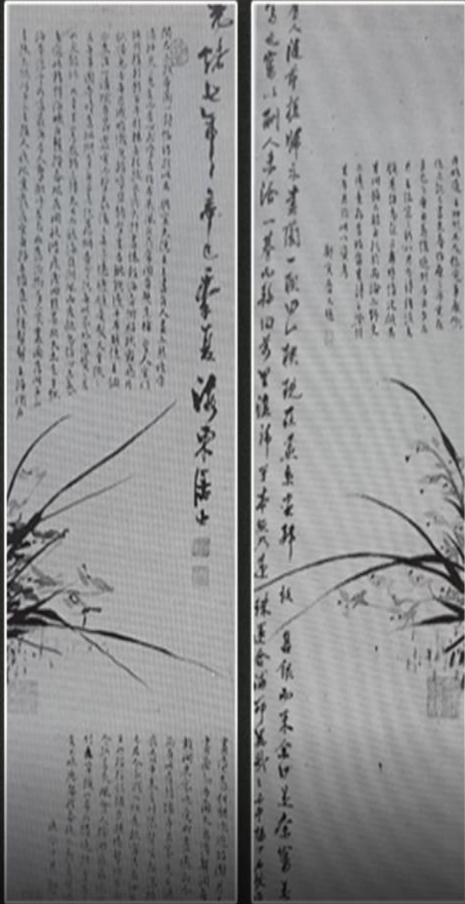


석란화

바위를 배경으로 아래, 위에
난을 배치한 그림

작품의 특징

» 대원군의 작품 총란도 대련



1881년

잃어버린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추서한 작품

8개월

질병의 고통과 가슴속의 한을 승화시킨
묵란화를 그리기 시작



1885년

정치적 실패 반복에도 야심을 버리지 않음을 표출

- 주로 괴석 중심의 석란화
- 돌의 불변성과 부동성은 지조와 절개를 지닌 동양의 신비정신을 보여주는 것

1889년

난초처럼 향기롭고 돌처럼 꺾이지 않아서
서로 영원히 저버리지 말자는 맹세를 보여줌

사군자 그림

일반사대부에 의해서 애호되었던 소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철되는
다양한 **감정 표현**과 **가치관**을 표현



우리 조상들의 내면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재

그림의 형성과정

이 지역만의 특수성과 시각적인 인습화가
형성되었던 과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



우리의 현재가 과거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닌
연속 계관에서 이루어지며
과거의 우리 특성은 현재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5. 추사와 대원군의 비교

- 난초그림에 나타난 추사 김정희와 대원군 이하응의 조형심리를 인생과 작품특징을 통하여 비교분석



그림6/이하응



그림7/김홍도

· 학습목표

1. 난초그림에 나타난 심리표현을 분석할 수 있다.
2. 난초그림의 의미를 설명 할 수 있다.
3. 추사와 대원군의 대표작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그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1. 난초그림에 나타난 심리표현 분석
2. 추사와 대원군의 난초그림 비교
3. 난초그림의 의미
4. 추사와 대원군의 인생 및 환경
5. 추사와 대원군의 관계
6. 추사와 대원군의 작품비교

1) 난초그림의 역사적 고찰

- 추사와 대원군이 주로 그렸던 난초그림은 북송시대
- (960-1124년)이후의 동양회화, 특히 문인화의 소재로
- 중국과 한국에서 널리 애호되었으며 일본에서도
- 무로마찌(1336-1573)시대부터 자주 그려졌다.
- 난초그림은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를 추구하는
- 문인화의 전형적 성격을 반영했던 소재로 깊은 산골짜기
- 에서 홀로 향기를 품고 있는 난은 세속의 명리를 떠난 고결한 선비의 자세에 비유되어 군자적 삶을 지향하던 문인사대부와 은일문사사이에서 자주 그려졌고 완상의 대상이 되었다.
- 최초의 묵란화가는 북송의 미불(1051 ~ 1107)이라고 하지만 원대초기 정사초(1239 ~ 1310)에 가서야 문인화의 소재로 뚜렷히 나타난다. 정사초는 몽고족인 원에게 송나라가 망하자 뿌리가 드러난 노근란을 그려 몽고족에게 빼앗긴 서러움과 상실감을 표현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난초그림은 사군자중의 다른 소재에 비해서 다소 늦게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성행하게 된다.
- 조선중기에는 이정, 이징, 이우 등의 작품이 보여 지는데 난엽이 뿌리로부터 부챗살처럼 평면적으로 뻗어 나가다가 중간에 뒤틀린 모습으로 난초의 기본적 묘사에 치중되었으며 땅은 간단한 선과 몇 개의 점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중앙일보사(1996).

그림 . 정사초

- **북송시대 이후**의 문인화의 소재로 중국과 한국에 널리 애호됨
-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를 추구하는 **문인화의 전형적 성격**을 반영했던 소재
- 난초는 세속의 명리를 떠난 **고결한 선비의 자세**에 비유
- 군자적 삶을 지향하던 문인사대부와 선비들 사이에서 자주 그려졌고 **완상의 대상**이 됨



추사 김정희



대원군 이하응

정치적 시련기를 맞이할 때마다 난초 그림과 글씨를 쓰면서 삶의 격정을 **예술로 승화**

2) 인생 및 환경

추사 김정희와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우리나라 회화사상 묵란화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역사의 전환기에 파란 많은 생애를 살았던 정치인들로서 정치적 시련기를 맞이할 때마다 난과 글씨를 쓰면서 삶의 걱정을 예술히 승화시켰다

• (1) 추사 김정희

- 추사는 조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신동이라는 촉망과 귀여움을 받고 자랐지만 젊은 시절에 경험한 가족들의 잇따른 죽음은 누구와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자기대상을 느껴야 할 시기에 그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착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 이것은 추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세상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 항상 반론을 가지면서 남의 말을 믿지 않고 부정하면서 남을 궁지에 몰아붙이기 잘했던 추사의 독선적이고 거만했던 태도로 이러한 고집스런 처세는 정쟁의 배후로 지목되어 납득할 수 없는 죄목으로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는 혹독한 귀양생활을 하였고 그 후 또다시 북청으로 유배되는 시련의 삶을 살았다.
- 그러나 북청시절의 추사는 더 이상 사리를 따지고 치열하게 대결하던 그 옛날의 추사가 아닌 오히려 세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출세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자연인으로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인간적 가치인가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1) 추사 김정희

» 추사 김정희 어린시절

가족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누구와도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애착 대상이 없었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세상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2. 인생 및 환경

- (2) 흥선 대원군 이하응
- 흥선 대원군은 혹독한 안동 김씨세도 하에서 무능한 왕족행세를 하며 살아야 했고 낭인으로 떠돌면서 김정희 문하에서 글씨와 묵란을 익혔으며 세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청년시절에 이미 추사로부터 극찬받기도 하였다.
- 당시 이하응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작은 키로 체구는 작았으나 원기가 있고 눈은 항상 번득번득하여 보기에 무서우며 무엇이든 형언하기 어려운 넘볼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고 한다. 말은 지혜롭고 교묘하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 중후한 격조를 보였고 이해타산엔 실리적이어서 허례허식을 몰랐다고 한다. 이렇듯 그는 다면적 성향의 인물로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평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이 내린 평의 공통점은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 그는 정치가로서의 면모와 함께 선비로서의 자세를 동시에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며 난초그림도 그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파란만장한 그의 정치적 부침속에서 0여년의 집권 후 복권과 유폐를 반복하면서 임종 때까지 정치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난초를 치면서 고독과 좌절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난초그림에 그의 울분과 내면이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선 대원군 이하응

»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에 대한 평가 2가지

좋은 평가

아주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과감한 실천력과 집권을 향한
야심을 꾀했던 정치가



재물을 탐내지 않고
소탈한 점을 높이 삼

나쁜 평가

아주 잔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강조

» 흥선대원군 이하응

정치가

선비

동시에 부각하고자 함
난초 그림도 그 일환으로 시작으로 추측

10여년의 집권 후 복권과 유폐를 반복하면서 임종 때까지
정치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난초를 치면서 고독과 좌절의 삶

(3) 추사와 대원군의 관계

- 추사와 대원군의 만남은 추사가 제주도 귀양에서 풀려나 지금의 서울 용산인 강상에 머문 첫해였다. 추사는 64세, 대원군은 30세때의 일로 아직 대원군이 되지 못하고 파락호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안동김씨의 관찰로부터 위장하고 다닐 때였다. 대원군은 영조의 현손인 남연군의 아들이었고, 영조의 계비인 정순황후는 추사의 11촌 대고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내외종간의 먼친척 이었다.
- 스승과 제자로 만난 추사와 대원군의 관계는 얼마 안되어 추사가 다시 북청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 일시 중단된다. 그러나 이때 추사가 그려준 난보는 대원군의 난초그림의 기본이 되었음을 대원군의 난맹첩에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 추사는 난초 치는 법은 예서를 쓰는 법과 가까워서 반드시 문자향과 서권기가 있는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인위적 기교를 넘어 손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고고한 예술을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난초를 그릴 때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반드시 생각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비로서 시작의 기본을 얻게 될 것이라 하였으며 그는 난초치는 기법을 두가지 말하는데 이것은 세 번 꺾는 삼전법과 인품을 갖춘 교양이라 하였다.
- 이후에도 추사가 이상적에게 그려준 묵란과 대원군의 묵란을 참고그림에서 비교해보면 구도나 난초의 모양에서 공통점이 보여지고 이후 대원군이 추사의 필법을 따르면서도 대원군만의 필법과 인생을 관통하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